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

The Teacher's Knowledge and Performance State of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at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이효철* · 장용수** · 유병국***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현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159개소, 종사자는 2,857명이며,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763개소, 종사자는 8,462명이다. 그중 전라남도 교사의 수는 251명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¹⁾. 장애아동의 출생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비 장애 아동 가정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된다²⁾.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인식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함으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³⁾. 2007년 5월 25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3~5세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육 시설에서도 이의 시행을 인정하는 등 장애아 보육에 있어 법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³⁾.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 보육은 더욱 양적인 측면

에서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적인 증가와 함께, 장애아 보육의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⁴⁾. 특히 장애아 동이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은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알아 봄으로써 교사들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 되었다. 또한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지식과 수행정도를 조사하여,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장애아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연수 교육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방법의 방향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실시 방법의 지식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 예방에 관한 교사

* 광양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광양보건대학 작업치료과

*** 한려대학교 물리치료과

투고일(2010. 10. 27), 심사완료일(2010. 11. 16), 게재확정일(2010. 12. 7)

교신저자: 이효철(emt0802@naver.com)

의 인식을 파악한다.

2)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수행정도,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3) 교사의 교육이수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의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2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5부를 제외한 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사고에 대한 인식 2문항,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10문항,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정도 25문항, 사고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25문항,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과 6문항 등,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수행정도, 지식정도의 비교분석은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사고발생 가능성과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을 위하여 카이제곱분석을 사용하였다.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교육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지식정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독립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29세가 52명(54.2%), 30~39세가 27명(28.1%), 40세 이상이 17명(17.7%)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55명(57.3%)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41명(42.7%)보다 조금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45명(46.9%), 천주교 24명(25.0%), 무교 16명(16.7%), 불교 11명(11.5%) 순이었다. 교육경력은 2년 미만 이 36명(37.5%), 2~5년이 33명(34.4%), 5~10년이 15명(15.6%), 10년 이상이 12명(12.5%) 순이었다 <표 1>.

2.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 연령, 학력, 종교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 > .05$). 그러나 경력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p < .05$) <표 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6)

| 특 성 | 구 분 | n | (%) |
|------|----------|----|-------|
| 성 별 | 여 자 | 96 | 100.0 |
| | | | |
| 연 령 | 20~29세 | 52 | 54.2 |
| | 30~39세 | 27 | 28.1 |
| | 40세 이상 | 17 | 17.7 |
| 학 력 | 전문대학 졸업 | 41 | 42.7 |
| | 대학교이상 졸업 | 55 | 57.3 |
| 종 교 | 기독교 | 45 | 46.9 |
| | 천주교 | 24 | 25.0 |
| | 불 교 | 11 | 11.5 |
| | 무 교 | 16 | 16.7 |
| 교육경력 | 2년 미만 | 36 | 37.5 |
| | 2~5년미만 | 33 | 34.4 |
| | 5~10년미만 | 15 | 15.6 |
| | 10년 이상 | 12 | 12.5 |

〈표 2〉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 사고가능성 | | | 합 계 | X ² | p |
|----|---------|-------|------|------------|-----|----------------|--------|
| | | 매우높다 | 약간높다 | 약간낮거나 매우낮다 | | | |
| 연령 | 20대 | 3 | 24 | 25 | 52 | 6.656 | 0.155 |
| | 30대 | 7 | 11 | 9 | 27 | | |
| | 40대이상 | 3 | 7 | 7 | 17 | | |
| 학력 | 전문대졸 | 5 | 16 | 20 | 41 | 1.079 | 0.583 |
| | 대졸이상 | 8 | 26 | 21 | 55 | | |
| 종교 | 기독교 | 6 | 17 | 22 | 45 | 9.092 | 0.168 |
| | 천주교 | 2 | 14 | 8 | 24 | | |
| | 불교 | 0 | 6 | 5 | 11 | | |
| | 무교 | 5 | 5 | 6 | 16 | | |
| 경력 | 2년미만 | 3 | 18 | 15 | 36 | 15.016 | 0.020* |
| | 2~5년미만 | 2 | 16 | 15 | 33 | | |
| | 5~10년미만 | 3 | 3 | 9 | 15 | | |
| | 10년이상 | 5 | 5 | 2 | 12 | | |

* p < .05

(2) 사고예방에 관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인식에서 연령대, 종교,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그러나 전문대졸업

자와 대학교졸업자 이상의 비교에서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혀 없었으며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표 3〉.

〈표 3〉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인식

| | | 예방가능 | | | 전체 | X ² | p |
|----------|---------|--------------|--------------|-------------------------|----|----------------|--------|
| | | 전적으로 예방가능 | 어느정도 예방가능 |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 | |
| 연령대 | 20대 | 6 | 44 | 2 | 52 | 0.865 | 0.929 |
| | 30대 | 4 | 22 | 1 | 27 | | |
| | 40대이상 | 2 | 15 | 0 | 17 | | |
| 학력 구분 | 전문대졸 | 2 | 36 | 3 | 41 | 7.450 | 0.024* |
| | 대졸이상 | 10 | 45 | 0 | 55 | | |
| 종교 | 기독교 | 6 | 39 | 0 | 45 | 5.275 | 0.509 |
| | 천주교 | 3 | 19 | 2 | 24 | | |
| | 불교 | 2 | 9 | 0 | 11 | | |
| | 무교 | 1 | 14 | 1 | 16 | | |
| 경력 구분 | 2년미만 | 3 | 31 | 2 | 36 | 3.272 | 0.774 |
| | 2~5년미만 | 6 | 26 | 1 | 33 | | |
| | 5~10년미만 | 2 | 13 | 0 | 15 | | |
| | 10년이상 | 1 | 11 | 0 | 12 | | |

* p < .05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보육시설 내에서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자신감 점수는 40세 이상이 2.86점으로 20~29세의 2.65점이나 30~39세의 2.83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학력의 경우에서도 대학교이상 졸업자에서 2.75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2.72점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종교의 경우 불교에서 2.85점으로 무교의 2.51점보다 컸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5). 교육경력에서 10년 이상이 2.83점, 5~10년이 2.82점, 2년 미만이 2.74, 2~5년이 2.66점의 순으로 나타나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자신감이 가장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표 4〉.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 정도

연령에 따른 안전관리 수행점수는 40세 이상이 4.73점으로 20~29세의 4.32점이나 30~39세의

4.26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학력의 경우에서는 대학교이상 졸업자에서 4.39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4.35점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종교의 경우 불교에서 4.49점으로 무교의 4.27점보다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5). 교육경력에서 5~10년이 4.58점, 10년 이상이 4.38점, 2~5년이 4.34점, 2년 미만이 4.3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 > .05)〈표 5〉.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지식정도

연령에 따른 지식정도는 20~29세가 16.38점, 30~39세가 16.00점, 40세 이상이 15.53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학력의 경우에서는 대학교이상 졸업자에서 16.27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15.93점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표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자신감

| | 구 분 | N | 자신감점수 | F | p |
|------|----------|----|-----------|-------|-------|
| 연 령 | 20~29세 | 52 | 2.65±0.41 | 1,918 | 0.153 |
| | 30~39세 | 27 | 2.83±0.52 | | |
| | 40세 이상 | 17 | 2.86±0.67 | | |
| 학 령 | 전문대학 졸업 | 41 | 2.72±0.48 | 0.136 | 0.713 |
| | 대학교이상 졸업 | 55 | 2.75±0.51 | | |
| 종 교 | 기독교 | 45 | 2.79±0.51 | 1,540 | 0.209 |
| | 천주교 | 24 | 2.74±0.50 | | |
| | 불 교 | 11 | 2.85±0.49 | | |
| | 무 교 | 16 | 2.51±0.43 | | |
| 교육경력 | 2년 미만 | 36 | 2.74±0.40 | 0.495 | 0.686 |
| | 2~5년미만 | 33 | 2.66±0.51 | | |
| | 5~10년미만 | 15 | 2.82±0.64 | | |
| | 10년 이상 | 12 | 2.83±0.59 | | |

* p < .05

〈표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 정도

| | 구 분 | N | 안전관리수행점수 | F | p |
|------|----------|----|------------|-------|----------|
| 연 령 | 20~29세 | 52 | 4.32±0.35 | 7.533 | 0.001*** |
| | 30~39세 | 27 | 4.26±0.58 | | |
| | 40세 이상 | 17 | 4.73±0.29* | | |
| 학 령 | 전문대학 졸업 | 41 | 4.35±0.45 | 0.253 | 0.616 |
| | 대학교이상 졸업 | 55 | 4.39±0.44 | | |
| 종 교 | 기독교 | 45 | 4.39±0.41 | 0.555 | 0.646 |
| | 천주교 | 24 | 4.36±0.47 | | |
| | 불 교 | 11 | 4.49±0.45 | | |
| | 무 교 | 16 | 4.27±0.53 | | |
| 교육경력 | 2년 미만 | 36 | 4.31±0.36 | 1.331 | 0.269 |
| | 2~5년미만 | 33 | 4.34±0.52 | | |
| | 5~10년미만 | 15 | 4.58±0.37 | | |
| | 10년 이상 | 12 | 4.38±0.52 | | |

* : 사후검정(Duncan)을 통한 유의집단

*** < .001

.05).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16.96점으로 천주교 (15.33점), 불교(14.91점), 무교(15.81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 < .05). 교육경력에서 10년 이상이 16.25점, 2~5년

이 16.18점, 5~10년이 16.07점, 2년 미만이 16.06 점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 > .05)〈표 6〉.

〈표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지식정도

| | 구 분 | N | 지식점수 | F | p |
|------|----------|----|-------------|-------|--------|
| 연 령 | 20~29세 | 52 | 16,38±2,63 | 0,771 | 0,465 |
| | 30~39세 | 27 | 16,00±2,02 | | |
| | 40세 이상 | 17 | 15,53±2,98 | | |
| 학 령 | 전문대학 졸업 | 41 | 15,93±2,45 | 0,435 | 0,511 |
| | 대학교이상 졸업 | 55 | 16,27±2,61 | | |
| 종 교 | 기독교 | 45 | 16,96±2,37* | 3,586 | 0,017* |
| | 천주교 | 24 | 15,33±2,39 | | |
| | 불 교 | 11 | 14,91±3,56 | | |
| | 무 교 | 16 | 15,81±1,64 | | |
| 교육경력 | 2년 미만 | 36 | 16,06±2,73 | 0,026 | 0,994 |
| | 2~5년미만 | 33 | 16,18±2,64 | | |
| | 5~10년미만 | 15 | 16,07±2,55 | | |
| | 10년 이상 | 12 | 16,25±1,82 | | |

* : 사후검정(Duncan)을 통한 유의집단

* p < .05

6. 교사의 교육이수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의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1) 보육시설 근무 이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보육시설 근무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비교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9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4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8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17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응급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6.27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5.85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표 7).

〈표 7〉 보육시설 근무 이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 항 목 | Mean±S.D. | | t | p |
|----------------------|------------|-------------|-------|---------|
| | 이수집단(n=63) | 비이수집단(n=33) | | |
|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 2.79±0.53 | 2.64±0.43 | 1.346 | 0.182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정도 | 4.48±0.35 | 4.17±0.54 | 3.018 | 0.004**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지식정도 | 16.27±2.40 | 15.85±2.80 | 0.772 | 0.442 |

** < .05

〈표 8〉 보육시설 근무 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 | Mean±S.D. | | t | p |
|----------------------|------------|-------------|-------|-------|
| | 수강집단(n=77) | 비수강집단(n=19) | | |
|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 2.75±0.47 | 2.68±0.61 | 0.509 | 0.612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정도 | 4.40±0.44 | 4.28±0.47 | 1.064 | 0.290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지식정도 | 16.19±2.48 | 15.84±2.81 | 0.541 | 0.590 |

〈표 9〉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 | Mean±S.D. | | t | p |
|----------------------|------------|------------|-------|--------|
| | 수강집단(n=88) | 비수강집단(n=8) | | |
|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 2.77±0.50 | 2.35±0.30 | 2.348 | 0.021*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정도 | 4.40±0.43 | 4.06±0.49 | 2.151 | 0.034* |
|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지식정도 | 16.31±2.43 | 14.13±2.95 | 2.388 | 0.019* |

* p < .05

(2) 보육시설 근무 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보육시설 근무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비교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5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8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0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28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6.19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5.84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표 8〉.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보육시설 근무 이전이나 근무 중 한번이라도 안

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전혀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비교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7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35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0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06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6.31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4.13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표 9〉.

IV. 고 찰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

의 실제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분석하여 장애아를 돌보는 교사의 안전 지식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교사의 안전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교사의 인식 중 사고발생 가능성은 남⁶⁾의 연구에서는 ‘약간 높다’가 61.3%,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가 25.8%, ‘매우 높다’가 9.7%, 김⁷⁾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약간 높다’가 54.2%,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가 32.5%, ‘매우 높다’가 13.3%로 나타났으며, 배경 변인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간 높다’와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가 ‘매우 높다’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 학력, 종교에 따른 양상의 유의성은 없었다($p > .05$). 그러나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에서 ‘약간 높다’와 ‘약간 낮다’의 분포가 크게 나타났으나 5년~10년 미만에서는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10년 이상에서는 ‘매우 높다’와 ‘약간 높다’가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p < .05$). 이는 경력교사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의 생활 중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진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방 가능성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다’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어느 정도 예방가능’하다가 남⁶⁾의 연구에서 93.5%, 김⁷⁾의 연구에서는 76.3%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⁶⁾과 김 등⁸⁾의 연구와 같은 큰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연령대, 종교,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그러나 전문대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비교에서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

사는 전혀 없었으며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는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간단한 손상이나 출혈에 대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보육시설에서 대학교졸업자 이상의 출신 교사들이 전문대졸업자출신 보다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처치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 준다.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 정도 연구에서 윤⁹⁾은 “유아교사의 아동안전 지식, 지각 및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배경요인 중 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안전관리 실천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고,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이 4.73점으로 20~29세의 4.32점이나 30~39세의 4.26점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학력은 전문대를 졸업한 자들보다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졸업자들이 안전관리를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p > .05$), 대학교이상 졸업자에서 4.39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4.35점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윤⁹⁾의 연구에서 교사의 안전관리 실천은 3년에서 5년 미만의 교사가 평균 60.59점으로 가장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5년에서 10년 미만이 4.5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 > .05$). 이는 장애·비장애 아동에 대해 5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수행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육시설내에서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정도에서 장¹⁰⁾은 “유치원교사들의 보건지식 및 유치원의 보건교육, 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연구는 본 연구와 대상자가 다르지만 유사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들의 보건지식을 알아보고 보건교육 실시현황과 보건학 이수여부에 따른 보건지식과 보건교육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 보건지식과 보건교육은 학력이 높을

수록, 보건학을 이수하였을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정¹⁰⁾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과 안전교육의 상관성이 높았으며, 학력과 보건지식, 보건교육은 상관성이 매우 높았고 경력은 보건지식보다는 안전지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건학 이수여부별 보건지식 및 보건교육, 안전교육간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석¹¹⁾은 “보육시설의 응급관리실태와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지식 및 교육실태조사”에서 교사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의 차이는 없었으며, 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학력은 대학교이상 졸업자 16.27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15.9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지식정도는 20~29세가 16.38점, 30~39세가 16.00점, 40세 이상이 15.53점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교육경력은 10년 이상이 16.25점, 2~5년이 16.18점, 5~10년이 16.07점, 2년 미만인 16.06점으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는 교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는 기독교가 16.96점으로 천주교(15.33점), 불교(14.91점), 무교(15.81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 < .05$). 이는 대부분 교사가 기독교 신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지만 종교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보육시설 근무이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에서 이¹²⁾는 유아교사의 안전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훈련을 통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해하고 있다’가 33.1%, 그 중 안전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92.3%, 안전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7.7%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에서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한 응급처치 지식과 기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p > .05$), 보육시설 근무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9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4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4.48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17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6.27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5.85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이는 교사들이 근무이전 학부 때 교육 이수 과정에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여준다.

보육시설 근무 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는 이¹²⁾의 연구 “유아교사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인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실태”에서 유아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참여에 따른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실시 여부를 비교한 결과 ‘사고유형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한 집단에서 안전교육 연수에 참여한 경우가 86.4%, 안전교육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3.6%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안전교육 연수 참여와 사고유형에 맞는 응급처치 실시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근무 중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5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68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0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28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정도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6.19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5.84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이는 이¹²⁾의 연구와 같이 근무 중 연수 교육을 통한 교사들이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 보다 더 자신감과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보육시설 근무 이전이나 근무 중 한번이라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전혀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비교에서 본 연구의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7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35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5$), 조¹³⁾의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재교육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실천 지식 분석에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에 대해 전혀 모른다’가 0%,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0%,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 69.4%,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30.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41.2%인데 반하여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58.8%로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 더욱 높은 이유는 자신감이 결여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0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06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조¹³⁾의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에 관한 항목에서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한 교사들은 58.8%가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41.2%가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

하였으나 실기보다는 이론위주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시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¹³⁾의 연구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은 응급처치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처방법을 모른다가 20%인데 반하여 응급처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80%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고발생 대처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정도에서 조¹³⁾와 서¹⁴⁾의 연구에서의 맥락을 유사하게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이론과 실기 중심 응급처치 수행능력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질 향상과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적절한 교육을 위한 지침서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1개도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 장애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조사임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 2월 3일부터 동년 3월 12일까지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5부를 제외한 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장애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보육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항목 중 경력항목에서 10년 이상에서 '매우 높다'와 '약간 높다'가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2. 보육시설에서의 사고예방에 관한 인식 항목 중 학력구분 항목에서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혀 없었으며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 정도 항목에서 연령에서 40세 이상이 4.73점으로 20~29세의 4.32점이나 30~39세의 4.2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지식정도 항목에서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16.96점으로 천주교 15.33점, 불교 14.91점, 무교 15.81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5. 보육시설 근무 이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항목 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정도 항목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4.48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서 4.17점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수에 따른 자신감, 수행정도 및 지식정도 항목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항목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2.77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35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지식과 수행정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향후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장애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대상자들과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 2008.
2. 이강운. 장애아동 교육요구에 대한 보건의사의 학교보건 업무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2007.
4. 조운경.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2008;8(1): 163-183.
5. 이효철, 장용수.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10;14(1):19-29.
6. 남혜경.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 김은숙.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 - 서울,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김미선, 박미화, 이효숙. 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6;13(1):91-114.
9. 윤선화. 유아교사의 아동안전 지식, 지각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정경자. 유치원교사들의 보건지식 및 유치원의 보건교육, 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1. 석희숙. 보육시설의 응급관리실태와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지식 및 교육실태조사.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이화진. 유아교사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인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실태.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조민순.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4. 서순희.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교육요구도.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Abstract =

The Teacher's Knowledge and Performance State of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at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Hyo-Cheol Lee* · Yong-Su Jang** · Byung-Kook Yoo***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perceived safety management in teachers working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grasp the state an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at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develop programs for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Results :

1. For the perception items of accident possibility in daycare centers, career with more than 10 years had higher response in 'very high' and 'moderately high' than 'moderately or very low'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2. For the perception items of accident prevention in daycare centers, no teaches with at least college education thought that 'it was not possible to prevent' and most of them thought that 'it was totally possible to preve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3. For the performance level of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items, forty and over(4,73) showed higher than age of 20-29(4,32) and 30-39 of age(4,26)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4. For the knowledge level of safety management and first aid items, the highest religion was found as Christian(16,96), followed by Catholic(15,33), Buddhism(14,91), and no religion(15,81)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5. For the items of confidence in safety management and first aid, performance level, and knowledge level, teachers who competed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4,48) had higher performance score than those who did not(4,17)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6. For the items of confidence in safety management and first aid, performance level, and knowledge level, teachers who competed first-aid education(2,77) had higher confidence than those who did not(2,35)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p < .05$).

Conclusion: he results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in teachers working for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closely correlated with knowledge and performance levels.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tinuous safety management and first-aid education for teachers working for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regular in-service training. Also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ith all subjects and various regions who contact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Daycare center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afety management, First aid, Knowledge, Performance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yang Health College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wangyang Health College

*** Dept. of Physical Therapy, Hanlyo University